

# 서울대 오늘 '조국 STOP' 3차 촛불

### 커뮤니티 의견 대부분 부정적...설문조사도 반대 70% 넘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9일 개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 '내일'은 이날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처음 열렸고, 같은달 28일 총학이 이를 이어받아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이 인정된 이만 참석이 가능하다. 총학생회는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소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구호나 행동을 하면 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임시부정 의혹을 포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조 후보자가 교단에 섰던 서울대뿐 아니라 딸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이미 3차례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같은날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은 여전히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다. 7일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학부 재학생 전원(1만 7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4명의 유효한 응답자 중 70%가 남게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8일 현재까지 올라온 글들을 보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된다"는 등 부정적 내용이 눈에 띈다.

한 학생은 "부인이 기소되면 조국도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인의 입장문을 보니 그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가족 전체의 멘탈이 천하무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학생은 "만일 청와대에서 조국을 임명할 경우 월요일 집회는 사퇴 촉구 집회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임명해서 역풍을 세계 맞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전히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학생은 "자식에게 자기가 일하는 기관에서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증거라며 들이대도 지지하는 자들이 즐비하다"면서 "정치를 팬덤으로, 종교로 생각하는 자칭 민주시민들과 편가르기로 생각하고 우리 편만 감싸는 후진적인 민주의식이다. 검찰 개혁 이전에 도덕과 윤리,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학생도 "조국이 법무부장관 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증거와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에도 그저 귀를 막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양심없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고 정의가 세우질 자격이 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한국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1



가을 알리는 코스모스 절기상 백로(白露)인 8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 하중도를 찾은 시민들이 코스모스 꽃밭을 산책하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 2020 대입 내일까지 수시접수...모의평가 강점 살리기 집중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10일까지 이어진다.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부 전략을 짜야 할 때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6일 시작돼 10일 마감된다.

올해 4년제 대학 198곳은 입학정원 34만7866명 중 77.3%인 26만 8776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해 역대 최고 규모다. 학생부교과전형이 14만 7345명으로 가장 많고 내신성적과 비교과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8만 5168명, 실기전형은 1만 937명, 논술전형은 1만 2146명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지원 기회는 최대 6회로 제한된다. 단 1곳이라도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6월과 9월 모

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면접이나 논술 등 2차 시험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능 최저기준이 있는 학교라면 적용과목 수나 필수과목 적용 여부, 탐구과목 적용방식도 챙겨봐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간도 반드시 확인하자. 마감일은 같아도 대학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6번의 지원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서 작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대학의 이름과 모집단위 명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띄어쓰기·맞춤법 등도 점검해야 한다.

막바지 학습 전략도 다시 확인한다. 최근 끝난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잣대다. 올해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가채점 결과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주 1회 정도는 실제 수능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며 "9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강약점을 분석해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고 조언했다.

뉴스1

## 조선대 차기 총장 후보 4명 등록

조선대학교가 대학 구성원간 갈등과 분열 해결을 위해 새로운 총장 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제17대 총장 입후보자로 4명이 등록했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총장 후보자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박대환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창록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 등 4명이 입후보했다.

조선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총장 초빙 공고를 하

고 4일부터 6일까지를 후보 등록 기간으로 정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선거는 토론회와 의견발표회 등을 거쳐 10월 1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권 비율은 교원 75%, 직원 13%, 학생 8%, 동장 4%를 반영한다. 입후보자는 30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5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선거 당일 1·2위 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 이슈 판결

## 경찰 출동 2시간 뒤 다시 찾아가 여자친구 살해 60대 '징역 20년'

'범행 부인' 국민참여재판 요구...배심원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조치 되었고 2시간 만에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해 온 여자친구를 찔러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이 같은 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격리조치 되었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

는 사정들, 살인 및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모두 A씨의 살인의 고의성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1명은 무기징역을, 5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4시 8분~23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여자친구 B씨(59·여)의 오른쪽 복부를 1차례 힘껏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부남으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 조기 발견, 자라치로, 영민 인허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